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1)

- 황종연 목사 / 2002. 9. 1 -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처음 느꼈을 때가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준비된,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를 구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교사로 파송되기전 12년 동안 선교에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하고,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방문하여 조언을 구하고, 말씀 묵상과 제자로서 훈련받기 위하여 선교가 비전인 교회를 찾고 그 이후 신학훈련, 목회훈련, 전문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선교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지금은 본부에서 선교사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준비된 선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 선교 현지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 / 현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어느 곳이나 쉽게 적응하는 능력 /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일을 만들어 가는 개척 정신
어떠한 어려움에도 쉽게 굴복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믿음 /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친화력 / 쉽게 현지 언어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뛰어난 언어감각
깊은 성경지식 / 가르치는 능력 / 탁월한 컴퓨터 실력 같은 것 입니다.

그러나 선교만을 생각하며 20여년의 길을 걸어오면서 내 안에 깨닫는 것은 우리는 정말 훈련되어져야 할 근본적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이차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능력을 갖추어도 현지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디도서 2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좋은 그리고 준비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 훈련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 행하던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안에 있는 경건치 못한 것이나 욕심과 정욕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경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치나 낭비를 피하고 재정에 단순하며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지키고 훈련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서 비누, 치약을 비롯해서 온갖 조미료와 양념 그리고 생필품을 준비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섬기기 위하여 간 현지인과 하나가 되지 못하며 영원한 이방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교 현지의 영혼들은 그들 가운데 왕이나 지배자나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며 함께 먹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울감을 느끼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몸은 그들 가운데 있지만 결코 하나는 될 수 없으며 나를 통해서는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좋은 선교사, 준비된 선교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중 하나는 “절제” 즉 생활 훈련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